부영그룹

창간 30주년 since 1989

한라일보

漢拏日報 제8850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19년 5월 1일 수요일(음력 3월 27일)

제주골프회원권 거래전문
(주)탐라회원권거래소
TAMRA MEMBERSHIP EXCHANGE
문의 : 064)745-8884

한라포커스 제주헬스케어타운 어떻게 되나?

영리병원 포기로 의료복합단지 '기로'

녹지 개설허가 취소소송 승소시 개원 가능성 있어
패소시 병원사업 철수에 2단계 공사 추진도 희박
JDC 공들인 통합의학센터 유치 등도 수포 가능성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대표 구샤팡)가 병원사업 포기의사를 밝힘에 따라 아시아 최고의 의료복합단지를 만드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구샤팡 대표는 지난 26일 '병원 근로자분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병원사업 중단 의사와 근로자 고용 해지를 공식 통보했다. 제주자치도가 지난 4월 17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하면서 더 이상 고용유지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료산업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해 온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봉착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은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일원 153만9339㎡ 부지에 아시아 최고의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현재 헬스케어타운 1단계 공사로 콘도미니엄(400세대)과 힐링타운(228실) 등 숙박시설이 준공돼 운영중이며, 지난해 7월엔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했다.

그러나 녹지측이 헬스케어타운의 핵심시설인 녹지국제병원 사업 포기를 결정하면서 의료복합단지 조성은 좌초 위기에 빠졌다. 중국 정부의 자본 해외유출 규제로 인해 2017년 6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힐링스파이럴호텔, 웰니스몰, 텔라소리조트, 힐링가든 등 2단계 사업 재개는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

녹지가 병원 사업을 포기할 경우 JDC가 공을 들인 한의학 연구시설과 통합의학센터 등의 유치도 물 건너 갈 것으로 전망된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지난 2월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할 경우 영리병원을 개원,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패소시 병원사업 중단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한 변호사는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림에 따라 녹지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소송'은 법원에서 '각하'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소송'은 각하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결국 행정소송 결과론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혹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부지 토지주들의 토지반환 소송도 예상된다. JDC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매수가 안 된 토지주 55명·48필지(24만5000㎡)의 토지를 수용했다. 사업 목적인 의료관광단지 조성이 안될 경우 토지주의 토지반환 소송이 예상된다.

JDC 관계자는 "녹지에서 지난 2017년 8월 직원을 채용했고 개원이 안 된 상태에서 급여를 주었다. 심지어 휴직한 직원들에게는 50%를 지급했다"면서 "제주도가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해서 더 이상 고용할 필요가 사라져 근로자 고용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월에 녹지그룹 본사를 방문했는데 최근에 항공사를 인수했고 전세계 1000개 사업 현장에 직원만도 3만명이 이르고 있었다"며 "이들 직원만 제주로 데리고 와도 외국인 의료관광은 가능하다. 그리고 녹지가 헬스케어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영리병원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제주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

도, 유망 中企 지원사업 추진
경영안정자금 등 예우·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도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성장유망중소기업을 신청·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경영·판매력이 우수하고 경영실적이 뛰어난 성장잠재력이 있는 업체를 발굴해 도내 제주대표 기업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선정대상은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상 41개 업종이다. 신청자격은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 3개년 이상 재무제표가 작성돼 있는 기업으로,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 제조업·운수업 4억원 이상, 건설업 40억원 이상, 유통업 20억원 이상, 그 외 업종은 3억원 이상 기업이면 가능하다.

지원대상 기업은 1차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2차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2년간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최고 4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금리 적용 ▷기술·경영 마케팅 컨설팅 지원 ▷제조물책임보험료 우선 지원 ▷신용보증 수수료 0.3% 인하 ▷성장유망중소기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해 재산세 50% 감면 ▷해외 박람회 참관 지원 등 각종 예우 및 지원혜택이 제공된다.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064-758-5740)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되며,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를 통해 자세한 공고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손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지원사업을 통해 제주의 대표기업으로 육성·지원하는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총 225개 업체를 선정한 바 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일자리 창출 사업장 지방세 감면

2018년 7월 13일 이후 대상
3년간 법인주민세 전액 면제

2018년 7월 13일 이후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의 지방세가 감면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개정·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시행일 이후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도내 1만여 법인 사업장에 '일자리 창출 기업 감면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 대상 법인 사업장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법인으로, 도내 사업장에서 2018년 7월 13일 이후 직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최초 감면 적용 연도부터 3년간 법인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추가고용 인원(3명 이하 1대, 4~7명 3대, 8~10명 4대, 11명 이상 5대)에 따라 법인 소유 자동차 최대 5대까지 자동차 연세액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2018년 7월 13일 이후 추가 고용이 발생하고 1년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해당되며, 법인 사업장 소재지 행정시 세무부서(제주시청 ☎728-2354·2393, 서귀포시청 ☎760-2333)에 매년 5월 25일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다만 2019년도는 조례 시행일(2018년 7월 13일) 이후 직원을 추가 고용해 5월에 감면 신청하는 경우 시행 시기를 감안해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된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공청회
2일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을 마련해 5월 2일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도민대상 공청회를 개최한다.

계획안은 전기차 연관 혁신성장자원인 전기차·충전기·배터리를 활용·강화하는 사업으로 제주 전기차 정책과 연계되고, 탄소없는 섬 2030 정책과 연계돼 전기차 보급 확대·전기차 이용편의 향상·재사용 생태계 구축 가능 사업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제주도는 공청회와 의견수렴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비롯해 오는 10일 개최되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5월 말까지 전기차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을 확정한 뒤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출할 예정이다. 표성준기자

5월은 우리들 세상… 어린이 행복축제 '제97회 어린이 날' 기념 '어린이행복축제' 선포식이 30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렸다. 오는 3일까지 이어지는 축제 기간에는 학생문화원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뮤지컬, 샌드애니메이션, 인형극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강희만기자